

# 튀르키예에서 5월 'GSTC 글로벌 지속가능관광 컨퍼런스' 대면 행사로 개최

조성환 기자 | 2023.05.22 15:00

튀르키예 문화관광부(Turkish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는 2023 GSTC 글로벌 지속가능관광 컨퍼런스'를 오는 5월 9일~12일 튀르키예의 대표 휴양지 안탈리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가 해마다 주최하는 이 컨퍼런스는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가 올해부터 대면 행사로 열린다.

지난해에는 스페인 세비아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고, 튀르키예관광진흥개발청(TGA)이 임우보하여 올해 컨퍼런스 개최지로 선정됐다.

GSTC는 지속가능관광, 생태관광 전반에 대한 국제적 표준 인증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국제 NGO단체이다.

2023 GSTC 글로벌 지속가능관광 컨퍼런스는 350여명의 여객, 관광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나흘 동안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회의, 행사 등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과 마케팅, 홍보 등 실무 트렌드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으며, 튀르키예의 대표적 인 휴양지이자 관광의 중심인 안탈리아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한편, 튀르키예는 2022년 GSTC의 협력을 맺고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튀르키예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표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GSTC 공식 인증을 받을 예정으로, 2030년경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는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컨퍼런스가 열리는 안탈리아는 튀르키예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지중해를 끼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바다, 문화 유적을 겸비한 튀르키예의 '관광 수도'로 불리고 있다. 안탈리아는 해마다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을 위해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